

한 · 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이stanbul 무역관 김재우 차장
신흥시장팀 박정현 과장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한 · 터키 FTA 주요 내용 / 2

II. 터키 시장개황 / 4

- | | |
|-----------|---------------------|
| 4 | 1. 터키 시장개요 |
| 7 | 2. 터키의 FTA체결현황 및 전망 |
| 8 | 3. 주요 산업현황 |
| 11 | 4. 한 · 터키 경제교류 현황 |

III. 한 · 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 13

IV. 한 · 터키 FTA 발효 관련 현지 반응 및 시사점 / 24

- | | |
|-----------|------------------|
| 24 | 1. 현지 주요업계 반응 |
| 29 | 2.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반응 |
| 32 | 3. 시사점 및 진출방안 |

요 약

한-터키 FTA는 2010년 3월 협상이 개시된 이래 2012년 무역협정 체결 서명, 양국 국회비준(한국 '12.11월, 터키 '13.1월) 등을 거쳐 5.1일부로 발효된다.

이번 FTA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공산품 전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농수산물 분야에서 민간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이번에 발효되는 상품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향후 1년 내에 서비스·무역 투자 협상 타결도 추진될 계획이다.

동 보고서에서는 한-터키 FTA 발효에 맞추어 10대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였다. 품목선정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관세인하효과, 터키 유망산업, 바이어·현지협회·국내진출기업들의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다. 그 결과 TV 수신용 기기, 자동차 부품, 선박, 광학/렌즈류, 플라스틱류(스티렌), 고무, 철강, 방직용 혼합사, 금속가공기계, 편물/니트류가 선정되었다.

FTA 발효로 동 품목의 관세는 즉시(자동차 부품은 5년 이내) 철폐되며, 가격인하와 우리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비관세장벽 철폐 효과로 터키 수입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플라스틱, 합성섬유 제품, 자동차 부품의 경우 현지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해 이번 한-터키 FTA로 관세철폐가 이루어짐에 따라 터키 수출이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TV 수신용 기기, 금속가공기계, 선박, 렌즈류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터키 내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우리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탄불 무역관이 실시한 현지 바이어 및 진출기업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제고되어 터키 수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더불어 품질과 납기 등 바이어의 요구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유럽 제품과 차별화를 이루어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기 진출 우리기업들은 이번 상품협정 뿐 아니라 향후 투자 및 서비스 협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관행, 외국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등의 불이익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 한·터키 FTA 주요 내용

□ 주요 협상 일지

- ◆ 2010. 3. 한·터키 FTA 협상 출범 선언
- ◆ 2012. 3.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협상타결 및 협정 가서명
- ◆ 2012. 8.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서명
- ◆ 2012. 11. 우리나라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 ◆ 2013. 1. 터키 의회 비준동의안 통과
- ◆ 2013. 3. 터키, 기본 행정절차 완료 통보
- ◆ 2013. 5.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정식 발효예정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터키 FTA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

□ 상품무역 분야 주요내용

- 양측 모두 거의 전 품목(수입액 기준)을 최장 10년 내 관세철폐
 - 우리측은 99.6%, 터키측은 100%를 10년 내 관세철폐
 - * 품목 수 기준 : 한국 92.2%, 터키 89.8%의 품목 관세 철폐(10년 내)
- 터키는 7년 이내에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 자동차 부품 : 한국의 수출 관심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 자동차 : 수출 주력 품목(소형차)에 대해 7년 내 비선형* 관세철폐
 - 석유화학 :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즉시철폐
 - 섬유 : 수출 주력 품목(화섬 및 직물)에 대해 5년 내 관세철폐
 - * 7년 비선형 : 발효 1년차의 관세 폭을 대폭 삭감 후 일정 비율대로 관세를 경감하므로 발효시점의 관세혜택이 큼

<한·터키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양허단계	한국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달러)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 (백만달러)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년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행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 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0
총합계	11,881	10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재구성

주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한·터키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양허유형	한국 양허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즉시 철폐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판,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 (나프타, 원유, 기타 석유제품)	9,365	ABS합성수지, 기타 플라스틱제품, 일부 평판압연제품, 기타 알루미늄 제품, 신변 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 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7,389
3년 철폐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차량용 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동기 및 펌프, 볼트·너트, 기타 산업기계, 가열난방기	350
5년 철폐	조립식 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쉬트, 화장압, 가솔린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233	기타 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 합성필라멘트사, 합성 필라멘트 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913
7년 비선행	-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션)	4
7년 철폐	양모사, 섬수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29	양모 및 섬수모혼방직물, 기어박스, 평판 압연제품, 칼라TV, 세탁기	835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KOTRA 재구성

주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II. 터키 시장개황

1. 터키 시장개요

□ 최근 경제동향

- 터키경제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인 연 8%이상('10년 8.1%, '11년 8.3%) 성장한 후 2012년에는 유럽재정위기로 2.6% 성장
- 2012년 유럽경제 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OECD 예상성장률(3.0%)에 근접, 상대적으로 튼튼한 경제구조를 반영
- 2012년 수출은 1,525억 달러로 전년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2% 감소한 2,365억 달러를 기록, 2009년 이후 처음 무역적자가 감소
- 그러나, 수출 규모는 수입의 64%에 불과, 향후 터키 정부의 수출정책 성공여부가 관심사항
- 물가상승률은 2011년 10.4%에서 2012년 6.2%로 진정세를 보였으나 현, 월 물가 상승률이 1%에 달해 경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터키 거시경제지표 변화 추이 및 전망>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경제성장률 (%)	4.7	8.1	8.3	2.6
1인당 GDP (달러)	8,475	10,206	10,363	10,673
소비자물가상승률 (%)	6.53	8.52	10.4	6.2
수출 (FOB, 백만달러)	102,135	113,883	134,954	152,560
수입 (CIF, 백만달러)	140,919	185,544	240,833	236,536

자료원 : 터키 재무성, 중앙은행, 통계청

□ 터키정부의 주요정책

- 터키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 2001년 경제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점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

<터키 경제개발계획 중점 과제(요약)>

- ☞ 에너지·교통 인프라 개선
- ☞ 정보통신기술 확산 및 자동화 도입
- ☞ 노동·교육 시스템 개선 및 상호간의 연계추진
- ☞ 낙후지역 개발 및 공공투자분야 개선
- ☞ 전자정부 효율성 및 서비스 확대

자료원 : 터키 재무성

- 터키 수출확대 정책은 민·관 공동으로 계획수립 및 추진
 - 수출확대 및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2009년부터 터키 재무성과 수출입협회 등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
 - 매년 12%씩 수출을 확대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달성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은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터키 브랜드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임.

<터키 수출 확대전략 중점 추진사항(요약)>

- ☞ R&D 분야 투자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경쟁력 확보
- ☞ 운송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 허브로의 도약
- ☞ 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 투자확대를 통한 자국 브랜드의 세계화

자료원 : 터키 재무성

□ 터키정부의 역점사업

-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 터키는 올림픽 개최(2013년 9월 발표예정) 유치 경쟁국인 일본(도쿄), 스페인(마드리드)에 비해 선정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특히, IOC 회원국들은 중동지역 최초의 올림픽 개최, 쿠르드 반군과의 평화협정 등에 의미를 부여
- EU 가입 추진 지속
 - 터키는 EU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EU는 터키를 후보 검토국으로만 지정하고 있어 터키 측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
 - EU 가입 반대이유는 가입요건 충족 미흡이나, 최초로 이슬람국가를 받아들일 경우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관측

□ 향후 경제전망

- 터키의 수출증가율이 중장기목표 달성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
 - 터키는 최근 EU와의 관세동맹에 따른 불이익¹⁾을 보완하기 위해 EU 개별국가 및 미국과의 FTA도 추진 중

<터키 GDP 및 수출입 전망>

구 분	2009년	2013년	2018년	2023년
세계 GDP(순위)	17	15	12	10
수출/수입(%)	73	65	75	80
수입(십억달러)	140	245	378	625
수출(십억달러)	102	160	284	500
수출 증가율(연평균)	-22.6	11.5	12	12
세계경제 비중(%)	0.84	1	1.15	1.5

자료원 : 현지 연구기관 자료를 토대로 이스탄불 무역관에서 작성

1) EU와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EU가 FTA를 맺은 개별국에 대해 터키는 의무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함.
이에 따라 EU와 미국 간의 FTA 논의에 앞서 터키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서두르고 있음

2. 터키의 FTA체결현황 및 전망

□ 체결현황

- 2013년 터키는 한·터키 FTA를 포함하여 총 17개 국가 및 지역경제 연합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주로 인근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여 왔음.
- 그러나 최근 칠레 및 우리나라와의 FTA를 추진하는 등 점차 비인접국과의 대상을 확대·검토 중임.

<터키의 FTA체결현황>

구분	국가(지역경제연합)	협정의 종류	발효여부	발효시기
1	E F T A	FTA	○	1992
2	E U	관세동맹	○	1996
3	이스라엘	FTA	○	1997
4	마케도니아	FTA	○	2000
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	2003
6	크로아티아	FTA	○	2003
7	팔레스타인	FTA	○	2005
9	튀 니 지	FTA	○	2005
8	모 로 코	FTA	○	2006
10	시 리 아	FTA	○	2007
11	이 집 트	FTA	○	2007
12	알바니아	FTA	○	2008
13	그루지아	FTA	○	2008
14	몬테네그로	FTA	○	2010
15	세르비아	FTA	○	2010
16	칠 레	FTA	○	2011
17	요 르 단	FTA	○	2011
18	레 바논	FTA	○	2012
19	모리셔스	FTA	○	2012
20	대한민국	FTA	5.1일 부	2013

자료원 : 터키 재무성

□ 향후 전망

- 터키는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비유럽 국가들과의 FTA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미국과 EU간 TAFTA²⁾ 협상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미국과의 FTA 협상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됨.

2) Trans Atlantic Free Trade Agreement를 뜻하는 것으로 대륙간 FTA로 번역할 수 있음. 동 FTA가 성사될 경우 전 세계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FTA로 기록될 전망이다.

3. 주요 산업현황

□ 개요

- 터키는 주요 유럽국가의 산업 구조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분야는 유럽 주요국의 투자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섬유와 관광분야는 터키의 전략산업 분야임.
- 터키의 지리적 이점, 풍부한 노동력과 우리나라와의 보완적 산업 구조를 활용 시 FTA 시너지 효과가 기대됨.

□ 산업별 현황

① 자동차 산업

- 자동차산업은 터키의 주력 산업으로 '10년부터 생산대수 100만대를 돌파, EU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
- 터키의 자동차 생산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심각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다 2012년에는 다소 감소했음.
- 유럽 수출비중이 높은 터키 자동차 산업구조는 유럽경제 위기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취약점도 안고 있음.

<터키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추이>

[단위: 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출	818,349	910,270	628,970	763,670	801,112	729,966
생산	1,099,413	1,147,110	869,605	1,094,557	1,234,637	1,072,978
수출비중	74%	79%	72%	70%	65%	68%

자료원 : 터키 자동차협회 (OSD)

② 백색가전 산업

- 터키의 백색가전 산업은 자동차 산업과 함께 터키의 주력산업이며 냉장고, 세탁기 등의 경우 전체 생산량의 약 75%를 수출하고 있음.
- 터키는 EU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유럽을 포함, 중동국가 등에 백색가전 1,600만대 수출
- 특히,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백색가전 제품의 경우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유럽지역 생산 1위 국가로서 연 2천만 대 이상 생산³⁾

<터키의 주요 백색가전 생산 및 수출 동향>

[단위 : 1,000 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2년 수출	수출 비중(%)
냉장고	6,310	6,790	7,588	5,683	74.8
세탁기	5,164	5,357	5,467	4,093	74.9
건조기	602	701	888	814	91.6
식기 세척기	2,537	2,900	3,204	1,877	58.6
총 계	14,613	15,748	17,147	12,467	

자료원 : 터키 백색가전 협회(HAIA)

③ 섬유산업

- 섬유산업은 터키 전체 수출의 8.8%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임.
- 특히, 2011년 터키는 의류수출 세계 6위, EU 내 수출 2위를 기록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에 강세를 보임.
- 완제품 뿐만 아니라 방직, 염색, 디자인 등 전체 세부 산업에서 고르게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터키의 섬유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십억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9월)
수출	8.11	9.49	11.50	5.82
수입	6.58	9.44	10.83	5.06

자료원 : 터키 재무성

3) 냉동고, 오븐 등을 포함할 경우 2012년 기준, 2,300만대 생산

④ 관광산업

- 터키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동로마 제국 이후 수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어 예로부터 관광산업이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 함.
- 2012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600만 명을 유치하였고, 관광수입 250억 달러를 거양하여 의료 관광 등 파생 산업의 수요도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의료관광은 터키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로서 미국, 유럽 대비 1/3~1/5 수준의 의료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보유, 꾸준히 성장

<터키의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변화 추이>

[단위 : 천명, 백만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외국인 관광객	32,006	33,027	36,151	36,775
관광수입	21,249	20,806	23,020	25,322

자료원 : 터키 문화관광부, 통계청

4. 한·터키 경제교류 현황

□ 무역

- 우리나라와 터키 간 무역은 꾸준히 확대되어 '97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후 '11년부터는 5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터키는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출국, 44번째 수입국으로서 교역 규모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무역흑자(38억7천만 달러)를 상당부분 기록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은 45억 달러 수준이며, 2012년 수입은 전년 보다 19.6% 줄어든 6억7,200만 달러를 기록

<한국의 對터키 연도별 수출입 동향>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수 출	3,036	4,087	3,773	2,661	3,753	5,071	4,551
수 입	194	282	362	434	516	804	672
무역수지	2,842	3,805	3,411	2,227	3,237	4,267	3,879
총교역액	3,230	4,369	4,135	3,095	4,269	5,875	5,223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MTI 품목분류 기준)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對터키 수출은 전기전자 분야가 12억1,400만 달러(전체 수출의 2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계류(10억1,600만 달러, 21.0%)와 운반구(7억 달러, 14.4%)이 뒤를 이었음.
- 한편, 터키로부터의 수입은 광물성 연료가 3억800만 달러로 58.5%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기계류(8,600만 달러, 16.3%), 의류(2,700만 달러,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WTA의 통계(HS품목기준)은 상기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증감추세 등은 큰 변동이 없음

- 한국의 對터키 수출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제품이 주를 이루며, 對 터키 수입은 광물성 연료와 기계류가 전체의 74.8%를 차지하는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한국의 對터키, 10대 교역품목(2012년)>

[단위: 백만 달러, %]

HS	수출품목	금액	비중	HS	수입품목	금액	비중
85	전기전자	1,214	25.1	27	광물성 연료	308	58.5
84	기계류	1,016	21.0	84	기계류	86	16.3
87	운반구	700	14.4	62	의류와 부속품 ⁵⁾	27	5.1
39	플라스틱	613	12.6	85	전기전자	21	4.0
72	철강류	321	6.6	61	의류와 부속품	19	3.6
86	전동차	234	4.8	42	가죽제품	18	3.4
89	선박	204	4.2	28	무기화학품	14	2.6
40	고무	199	4.1	87	운반구	12	2.3
27	광물	181	3.7	90	광학류	11	2.2
90	광학류	158	3.2	73	철강제품	10	2.0
	전 체	4,840	100.0		전 체	526	100.0

주 : HS 2단위 기준

자료원 : WTA

5)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

III.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 10대 수출 유망품목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종합·제시함

1. 한국의 對터키 수출품목 중 HS코드 2자리에 의해 1차 선정
2. 터키의 성장률이 높은 품목 선정
3. 한·터키 FTA로 인한 관세철폐 주요 품목 검토
4. 현지 바이어, 기관 및 협회, 기 진출기업의 의견 수렴

◆ 동 기준에 의해 분석한 결과 전자기계류, 기계, 자동차, 철강, 선박, 고무, 화학, 섬유 등이 유망종목으로 선정되었음

① 전기전자

품목명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HS Code	8528
관세율 변화	발효 전 8%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철폐
선정사유	- '11년 18%에서 '12년 5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 - FTA 발효 이후에는 시장을 지배할 것으로 판단		
향후전망	- 내수 활성화와 축구열기로 인한 TV 시청 증가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예상됨		

- 전기전자 분야는 터키 시장에서 중국과 경합을 벌였으나, 2012년에는 한국제품이 절대적 점유율을 차지, 사실상 독주체제를 구축
- 한·터키 FTA 발효로 일부 EU 경쟁기업들과 동등한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어 수출이 가장 유망한 품목임.
- 중국,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2012년에는 한국산은 중국산 보다 3억 달러 이상 많은 5억7천만 달러 기록

<터키의 전기전자류 (HS Code 8528)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대한민국	171.06	199.24	576.90	17.73	17.99	50.20
2	중 국	254.58	275.21	187.89	26.39	24.85	16.35
3	헝가리	122.84	137.29	123.75	12.73	12.4	10.77
4	폴란드	151.74	117.08	82.75	15.73	10.57	7.2
5	슬로바키아	160.881	232.23	61.404	16.68	20.97	5.34
6	타이완	10.05	10.02	16.61	1.04	0.91	1.45
7	체 코	21.70	32.23	15.10	2.25	2.91	1.32
8	말레이시아	4.15	9.05	13.00	0.43	0.82	1.13
9	일 본	12.75	12.77	12.99	1.32	1.15	1.13
10	태 국	16.02	123.38	9.52	1.66	1.21	0.83
전세계 총계		964.716	1,107.31	1,149.10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② 자동차

품목명	차량용 부품 및 부속품	HS Code	8703
관세율 변화	발효 전 8%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또는 5년
선정사유	- 터키에서 가장 활발한 산업이 자동차 및 부(속)품, 애프터서비스 분야임. - 자동차 부품 수요가 꾸준하여 관세 인하의 효과가 즉시 기대되는 산업임. - 터키 자동차 부품협회에서는 한국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		
향후전망	- 한국 완성차의 품질 및 인지도 향상에 따른 부품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현지업체에 따르면 IT를 접목한 자동차 전장 분야의 부품수요가 매우 유망		

- 이번 FTA 체결로 인하여 완성차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 분야의 수혜 폭도 클 것으로 기대
- 터키는 유럽의 자동차 생산지로서 최근 내수시장도 활성화되고, 수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가격 측면에서 터키와 관세동맹국(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이 가능할 전망이다.

<터키의 자동차류(HS Code 8703)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독일	2,367.62	2,986.81	2,791.72	35.03	35.19	38.50
2	스페인	1,057.32	1,213.09	887.16	15.64	14.29	12.24
3	프랑스	486.69	635.34	510.38	7.2	7.49	7.04
4	영국	427.82	541.69	468.01	6.33	6.38	6.46
5	대한민국	468.34	663.79	419.18	6.93	7.82	5.78
6	폴란드	349.82	488.55	358.91	5.18	5.76	4.95
7	체코	98.40	179.36	342.99	1.46	2.11	4.73
8	루마니아	186.29	238.18	292.52	2.76	2.81	4.03
9	멕시코	139.79	232.73	234.92	2.07	2.74	3.24
10	일본	443.19	443.05	212.85	6.56	5.22	2.94
전세계 총계		6,759.44	8,487.71	7,250.71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③ 선박

품목명	선박과 수송 구조물	HS Code	8901
관세율 변화	발효 전 1.7%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선정사유	- 선박은 장치산업으로서 대규모 장비 및 부품이 소요되고, 유사품목 군의 관세도 대부분 철폐 - 특히, 삼면이 바다인 터키는 요트부터 중형선박까지 다양한 선박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향후전망	- 마리나 산업의 수요는 꾸준한 편이며, 경기호황시에 가장 수혜를 누릴 수 있는 품목임.		

- 선박분야 또한 부표(HS 코드 8907905000, 양허 3)를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즉시 관세 철폐
- 터키는 특히 요트, 소형선박, 중형선 (3만톤 이하급) 등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향후 경제가 호황으로 전환 될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중국, 일본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 예상

<터키의 선박류(HS Code 8901)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대한민국	412.10	304.096	204.43	49.03	27.35	31.10
2	일본	113.14	438.69	172.76	13.46	39.46	26.28
3	독일	74.53	44.75	106.03	8.87	4.03	16.13
4	중국	157.10	266.345	90.149	18.69	23.95	13.71
5	필리핀	0	0	46.39	0	0	7.06
6	그리스	0.91	0.40	18.49	0.11	0.04	2.81
7	파나마	0	8.442	4.79	0	0.76	0.73
8	마셜제도	0	0	3.41	0	0	0.52
9	포르투갈	0	0	3.06	0	0	0.47
10	말타	26.57	2.35	2.06	3.16	0.21	0.31
전세계 총계		840.60	1,111.88	657.35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④ 광학, 렌즈

품목명	광학 / 렌즈류	HS Code	9013
관세율 변화	발효 전 8%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선정사유	- 전기전자 산업의 발달과 동시에 부품수요의 동반 상승 전망		
향후전망	- 산업재로서 수요가 많고 전기전자산업의 원가경쟁에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광학·렌즈 분야는 전기전자 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상호보완적 구조를 갖고 있어 FTA로 인한 수혜품목으로 예상됨.
-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정밀렌즈, 광섬유, 카메라렌즈 분야 등은 향후 국내산 가전제품의 수출과 동시 성장 가능성이 높음.
- 무기용 망원조준기의 경우 2012년 수출이 이스라엘, 독일을 제치고 대폭 상승한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로 주력상품으로 자리매김.

<터키의 무기용 망원조준기 (HS Code 9013)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대한민국	0.28	57.35	153.19	0.62	1.93	38.56
2	이스라엘	18.12	17.44	24.46	38.90	30.42	15.97
3	독일	9.51	17.33	23.08	20.41	30.22	15.07
4	타이완	0.06	0.39	16.17	0.15	0.69	10.56
5	중국	2.45	3.86	10.24	5.27	6.74	6.69
6	캐나다	0.21	2.68	6.97	0.46	4.69	4.55
7	미국	5.82	4.62	5.56	12.50	8.05	3.63
8	영국	7.44	3.35	5.30	15.98	5.84	3.47
9	한국	0.0	0.0	0.57	0.0	0.0	0.38
10	일본	0.087	1.88	0.25	0.19	3.28	0.17
전세계 총계		46.60	57.35	153.19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⑤ 플라스틱

품목명	스티렌 / 부다피엔	HS Code	3903
관세율 변화	발효 전 6.5%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선정사유	- 플라스틱은 기초산업으로서 파생수요가 매우 높은 편으로 터키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사실상 플라스틱 전품목(HS 2자리 기준 90% 이상)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매우 유망		
향후전망	- 터키에서 플라스틱 분야는 중국산 제품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산업으로서 FTA 이후 국산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됨		

- 10대 유망품목 중 관세철폐 효과가 가장 두드러 질 것으로 기대, 대부분의 플라스틱류는 즉시 관세 철폐
- 2012년 우리나라의 對터키 수출금액은 1억 4,7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출국 1위 벨기에는 2억 2,620만 달러를 수출하여 양강구도를 이루고 있음.
- 6.5%의 가격인하로 향후 몇 년 이내에 동등하게 순위가 상승하거나 또는 역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터키의 플라스틱류 (HS Code 3903)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벨기에	206.36	244.37	262.45	26.73	24.79	26.94
2	대한민국	109.88	165.00	147.09	14.23	16.74	14.54
3	FTZ	55.52	60.16	75.69	7.19	6.10	7.48
4	태국	37.39	67.67	72.84	4.84	6.86	7.2
5	독일	67.24	74.20	63.04	8.71	7.53	6.23
6	프랑스	28.95	37.37	58.68	3.75	3.79	5.8
7	타이완	41.42	65.25	53.01	5.37	6.62	5.24
8	중국	33.52	38.51	48.43	4.34	3.91	4.79
9	네덜란드	32.36	36.63	25.30	4.19	3.72	2.5
10	스페인	29.12	27.01	24.40	3.77	2.74	2.41
전세계 총계		772.08	985.92	1,011.80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⑥ 고무

품목명	라텍스 / 염화부틸고무	HS Code	4002
관세율 변화	발효 전 5% 또는 8%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선정사유	- 우리나라는 전체 고무수출 4위, 라텍스류 1위로서 전 품목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수출증가 기대		
향후전망	- 전체 수출은 향후 인도네시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		

- 라텍스 분야는 미국, 러시아 등과 경쟁관계에 있으며 국산의 품질 우수성은 터키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음.
- 고무는 섬유, 자동차 타이어 등 터키 기간산업의 원료로 활용되어 터키 측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필요한 품목임.
-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철폐의 수혜가 예상되며, 꾸준한 수출 증가가 기대됨.

<터키의 고무류 (HS Code 4002)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대한민국	82.053	152.693	118.69	14.36	16.67	15.21
2	미국	60.105	119.42	110.91	10.52	13.04	14.21
3	러시아	76.11	126.87	93.85	13.32	13.85	12.02
4	타이완	25.813	40.116	67.405	4.52	4.38	8.64
5	네덜란드	38.00	60.20	64.60	6.65	6.57	8.28
6	독일	49.82	80.48	61.38	8.72	8.79	7.86
7	일본	34.58	39.26	39.95	6.05	4.29	5.12
8	이탈리아	25.36	47.11	35.84	4.44	5.14	4.59
9	폴란드	30.67	35.91	32.89	5.37	4.71	4.48
10	프랑스	26.09	35.91	32.89	4.57	3.92	4.21
전세계 총계		571.56	916.09	780.57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⑦ 철강

품목명	니켈과 망간함유량이 기준치 이하 철강	HS Code	7219
관세율 변화	발효 전 2%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철폐
선정사유	- 철강은 대규모로 수입되므로 수입상의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품목임. - 또한 현지진출 대기업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향후전망	- 자동차, 건설산업의 꾸준한 성장과 함께 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예상		

- 철강분야 중 니켈, 망간이 함유된 품목군은 제품의 품질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터키의 산업발달과 동반상승 기대
- 니켈과 망간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인 품목은 대만(1위, 20% 점유)과 이탈리아(7위, 7%)의 차이가 크지 않아 혼조세를 보임.
- 이는 수입규모가 많고, 오랜 기간 형성된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현지 바이어의 특수성에서 발생

<터키의 철강류 (HS Code 7219)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타이완	152.99	186.87	162.26	19.75	20.20	20.31
2	대한민국	112.05	120.11	101.64	14.46	12.99	12.72
3	독일	96.26	96.59	83.53	12.43	10.44	10.45
4	중국	65.34	93.72	77.93	8.44	10.13	9.75
5	벨기에	69.88	75.79	68.97	9.02	8.19	8.63
6	핀란드	51.87	102.38	61.92	6.70	11.07	7.75
7	이탈리아	60.81	72.03	55.87	7.85	7.79	6.99
8	스페인	29.79	24.34	35.33	3.85	2.63	4.42
9	프랑스	30.36	34.78	31.12	3.92	3.76	3.9
10	스웨덴	15.02	15.14	25.68	1.94	1.64	3.21
전세계 총계		774.77	925.03	799.15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⑧ 방직용 혼합사

품목명	합성필라멘트사	HS Code	5402
관세율 변화	발효 전 8%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선정사유	- 원가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서 8%의 세율이 즉시 철폐되어 수혜가 높을 것으로 예상		
향후전망	- 터키의 섬유, 의류,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향후 매우 유력한 분야임.		

- 합성섬유 분야는 주로 개발도상국가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과 경쟁하는 품목임.
- 특히 가격경쟁이 심한 분야이므로 FTA 수혜로 인한 원가절감이 클 것으로 예상
- 국산 제품은 품질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어 수출증가 기대

<터키의 방직용 혼합사 (HS Code 5402)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중국	250.278	333.23	438.86	23.77	25.71	29.54
2	인도	121.68	179.85	272.20	11.56	13.87	18.32
3	베트남	45.90	101.59	135.66	4.36	7.84	9.13
4	인도네시아	83.72	117.55	123.87	7.95	9.07	8.14
5	대한민국	84.63	90.87	97.06	8.04	7.01	6.53
6	말레이시아	71.81	76.51	73.18	6.82	5.90	4.93
7	타이완	49.51	46.00	52.83	4.70	3.55	14.84
8	이탈리아	37.04	42.66	45.29	3.52	3.29	3.05
9	스위스	35.882	44.02	34.259	3.41	3.40	2.31
10	영국	25.037	28.334	33.965	2.38	2.19	2.29
전세계 총계		1,053.13	1,296.36	1,485.80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⑨ 기계

품목명	단조, 해머링 등 금속가공기계	HS Code	8462
관세율 변화	발효 전 1.7~2.7%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철폐
선정사유	- 산업수요가 매우 높은 제품으로 국산제품이 주요 경쟁국 제품과의 품질, 기술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가격 인하효과로 수혜 가능		
향후전망	- 대형 프로젝트 수주시, 터키 건설분야에 일정부분 자국산 제품 납품이 가능 - 가격 측면에서 관세철폐로 이태리,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EU국가와 동일한 경쟁이 가능		

- 유럽산 공작기계들이 터키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2012년 한국 제품은 769% 성장(6백만 달러 → 5천2백만 달러)하여 단숨에 2위를 차지
- 한·터키 FTA 발효 이후에는 동일 군(HS 코드 84)의 한국산 관세 품목(2.2% 위주)의 다수가 즉시 철폐되므로 단기에 수출증가 가능
- 품질경쟁력이 관건인 품목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요소의 중요성이 낮아 최근 일본의 엔저 기조 속에도 지속성장이 전망됨.

<터키의 공작기계류 (HS Code 8462)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유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이태리	48.84	77.59	114.45	31.98	34.12	38.16
2	대한민국	10.83	6.03	52.44	7.09	2.65	17.48
3	독일	33.26	33.63	35.35	21.78	14.79	11.79
4	스페인	2.00	14.49	20.94	1.30	6.38	6.98
5	프랑스	6.59	6.42	18.32	4.32	2.82	6.11
6	중국	14.15	22.05	14.23	9.26	9.70	4.75
7	대만	9.76	10.21	13.91	6.39	4.49	4.64
8	영국	3.19	2.12	8.60	2.09	0.93	2.87
9	미국	3.08	1.71	3.41	2.02	0.75	1.14
10	핀란드	3.83	4.96	2.50	2.51	2.19	0.83
전세계 총계		152.72	227.35	299.94	100	100	100

자료원 : WTA

⑩ 편물(메리야스, 뜨개질)

품목명	편물 / 니트류	HS Code	6004
관세율 변화	발효 전 10% → 이후 0%	양허유형	즉시
선정사유	- 전 품목에서 10%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향후전망	- 향후 수출규모에 있어서도 고성장 기대		

- 편물분야는 가격우위 (중국, 베트남), 품질우위 (이탈리아, 스페인, 이집트) 등 지향하는 바에 따라 경쟁 상대국이 다름
-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FTA로 인한 가격우위도 점할 수 있어 상당한 수혜품목이 될 전망
- 다만, 다른 업종에 비해 수출규모(2012년 기준, 4천2백만 달러)는 높지 않은 편임

<터키의 니트 (HS Code 6004)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국가명	금 액			점 유 율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1	대한민국	61.49	70.92	42.21	46.59	44.71	44.63
2	중국	41.13	53.37	27.22	31.16	33.65	28.78
3	이탈리아	13.90	17.95	12.35	10.53	11.32	13.32
4	베트남	0.089	1.62	2.34	0.07	1.02	2.48
5	미상국 ⁶⁾	0.03	0.68	1.65	0.02	0.43	1.75
6	스페인	1.99	1.86	1.61	1.51	1.18	1.71
7	이집트	1.01	1.46	1.56	0.77	0.92	1.66
8	에티오피아	6.88	4.87	1.53	5.21	3.08	1.62
9	프랑스	0.90	0.80	1.038	0.69	0.51	1.10
10	영국	0.10	0.16	0.44	0.08	0.1	0.47
전세계 총계		132.00	158.62	94.60	100	100	100

자료원 : WTA

6) 통계 데이터에 Unidentified Country로 표시

IV. 한·터키 FTA 발효 관련 현지반응 및 시사점

1. 현지 주요업체 반응

- ◆ 2012년 7월, 현지 바이어 7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약 51%(36개사)가 FTA 발효시 '한국산 수입 확대, 수입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전망
- ◆ 본 보고서에서는 2013년 4월 실시한 현지 바이어, 협회, 기 진출 투자기업들의 인터뷰 내용을 수록
- ◆ FTA 활용에 관해서는 업종별로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견해차가 존재하여, 국내기업들의 산업별 전략이 필요

□ 자동차부문

회사명	Otokar (자동차 OEM사)
주요내용	- 이번 FTA로 인해 터키 자동차 업계에서의 향후 수입은 약 5-10%정도 확대 전망, 특히 부품수요 거래선은 기존 유럽에서 한국으로 다각화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자동차의 특성상 단기간의 부품 거래선 교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발주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
회사명	Oto Yasinler (자동차 정비 부품 수입)
주요내용	- 한국에서 순정품과 대체 유사부품 모두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은 가격요인이 제품을 구매하는데 매우 크게 작용 - FTA로 인한 가격인하가 매우 중요함. 대만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일부분 대체하려고 함.

□ 철강부문

회사명	Arcelik (철강 원료 수입)
주요내용	- 철강분야는 대규모로 수입하기 때문에, 이미 별크로 인한 할인이 FTA의 관세인하폭을 상쇄하였다고 봄. - 오히려 공급업체들이 품질 및 납기를 소홀히 할 경우, FTA는 부작용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섬유

회사명	Macin Textile (섬유 원료 수입)
주요내용	- 섬유와 원사를 주로 수입하며, 한국 상품들의 품질은 좋으나 가격이 비싸 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상품들을 수입하고 있었음. - 보다 좋은 품질을 갖춘 이태리, 독일 상품도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들의 중간등급으로서 차별화가 되지 않는 이상 FTA의 효과가 크게 작용할 것 같지 않음.

□ 기계류

회사명	AG Ambalaj (포장 기계 수입, 유통)
주요내용	- 한국으로부터 포장 기계를 수입중이며, 관세혜택으로 인해 주문량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음. - 그러나, 한국 업체의 품질이 다소 일정치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FTA로 인한 가격은 사실 우리 기대수준의 품질을 맞추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음.

□ 플라스틱

회사명	Pagder (플라스틱 산업협회)
주요내용	- 당사는 수입업체가 아닌, 플라스틱 산업협회로서 한·터키 FTA가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함. - 한국 측에서도 터키산 플라스틱 원료를 싸게 수입하면 여러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선박

회사명	Betinoks Stainless Steel (대형 선박 외장 철판 수입)
주요내용	- 선박분야는 이전부터 교류가 활발했던 분야로 FTA 발효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에도 기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FTA 발효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물량을 늘려나갈 의향이 있음.(최대 20% 내외) - 한편, 터키에서는 FTA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터키 FTA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길 바라며 한국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함.
회사명	BM Denizcilik (소형 보트 제품 수입)
주요내용	- 관세가 철폐(또는 인하)되면 확실히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선박 관련 산업은 제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납기준수, 사후 서비스, 홍보협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함. - 이러한 부분에 유럽회사들이 잘 하고 있어 한국기업들도 유럽기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

회사명	Energisa (에너지 플랜트 컨설팅)
주요내용	- 에너지 분야의 경우 한국제품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 기자재는 유럽과 수준이 비슷 - 따라서, 터키의 건설기자재 제조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 이번 FTA로 인한 협력기회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로 한국산 제품이 약 5% 내외의 수출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투자협정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예상됨.

□ 화학

회사명	Eral-Protek (화학원료 수입)
주요내용	- 현, 삼성과 LG 계열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어 한·터키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당사가 수입하는 대부분의 원료는 관세율이 2.7%이며, 어떤 것들은 5%가 넘기도 함. - 화학원료의 특성상 벌크 수입이 많아 가격이 1%만 오르내려도 상당한 마진의 차이가 있음. 이번 FTA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

□ 방산분야

회사명	Tezcur International (방산 분야 부품 수입)
면담내용	- 당사는 1년에 약 8백만 달러를 수입하며, 이 중 한국산 제품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 - 군수분야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므로, 가격보다는 바이어-셀러 간의 관계가 더욱 중요함. - 당사는 한국 거래처와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의약분야**

회사명	Adeka Ilac (의약 원료 수입, 유통)
면담내용	- 한국산 원료를 수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변 업계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원료 기술이 꽤 높다는 것을 알고 있음. - FTA가 직접적인 이익을 줄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음. 터키의 의약분야 또한 매우 경쟁력이 높아 한국산 의약품들이 터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함.

2. 현지 진출 우리기업 반응

- ◆ 현지진출 기업(13개사, 교포기업 1개사 포함)들을 긴급 인터뷰 한 결과, 대부분 기업들은 FTA에 긍정적인 전망을 밝힘.
- ◆ 특히, 투자기업들은 상품 협정 뿐 아니라 현지에서의 기업 활동에 대한 애로가 많아 향후 투자협정에 관심을 보임.
- ◆ 본 인터뷰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대부분 비공개 요청에 따라, 이니셜 표기 및 산업별로 참여 기업들의 공통 견해를 수록

□ 자동차 / 자동차 내장 분야 (H사, G사)

- 터키의 자동차 시장은 대부분이 소형 (1,600 cc)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생산(연산 10만대에서 최근 20만대까지 증설)을 통해 조달하므로 FTA로 인한 관세이익은 크지 않음.
- 다만, 협력업체들의 경우 원산지 자율 증명에 따라 부담이 덜하고 이로 인해 완성차 업체에게도 원가절감을 거둘 것으로 기대
- 우리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협정으로 인해 현지 운영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자동차 내장 분야는 수입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고, 경쟁이 심한 편. 특히 저가의 중국산 제품들과 경쟁하고 있어 가격이 매우 중요
- 터키정부가 다른 나라들과의 협정도 서두르고 있어, 시장선점 차원에서 더 일찍 발효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전기·전자 분야 (S사, L사, L사)

- 휴대폰(무관세), 에어컨(현지생산), TV, 냉장고, 세탁기 등(관세 수혜 품목)에서 TV는 일본산과의 경쟁, 냉장고 및 세탁기 등은 독일제품과의 시장 경쟁에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함.
- 휴대폰은 우리가 다소 후발주자라서 시장경쟁이 불가피한 종목이나, FTA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인식 전환이 오히려 기회요인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철강 분야 (S사, D사, H사)

- 수출 주력 품목의 관세율이 7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원가절감 기대. 발효 직후부터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수입량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대략 향후 추세를 전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특히, 최근 일본의 엔화 약세 정책은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지 않음. 엔화약세는 FTA처럼 장기적인 형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야 함.
- 수출 품목은 제 3국 수출을 통해 그간 면세를 유지했으며, 내수용 제품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내수시장 공략을 준비 중에 있음.
- 현지의 건설경기 동향 및 프로젝트 수요를 주시하고 있는 편임.

□ 섬유 분야 (T사, T사)

- 직물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8%인 기존 관세와 20%인 산업보호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국산 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폴리에스터사 및 스판덱스사는 기존 4% 관세가 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섬유는 터키 정부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관세를 많이 적용하는 분야라서 FTA를 다른 산업보다 많이 기대하는 분야임.

□ 화학 분야 (L사)

- 석유화학 제품은 품질 수준이 거의 비슷하여 원가경쟁력이 매우 중요 특히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므로 수출 증가를 기대

□ 금융 분야 (K사)

- 상품협정에 관한 FTA의 수혜는 없으나, 터키가 최근 금융분야를 개방하면서 점차 시장 문턱이 낮아 질 것으로 기대
- 조만간 터키에 법인을 설립하여 터키의 금융분야에 진출 할 계획임. FTA로 인해 많은 한국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함.

□ 일반 분야 (현지 교포 기업 : S사)

- 터키의 對한국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향에도 터키의 무역 확대 정책으로 양국 간 교역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 우리 회사는 많은 물량을 수입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이익은 없으나 한국산에 대한 브랜드 상승 시, 기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봄.

3. 시사점 및 진출방안

- ◆ 터키와의 FTA는 분명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켜, 신흥 시장에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전망
- ◆ 다만, 터키는 이스탄불 지역과 이외의 지역이 큰 격차를 보여 이에 대한 시장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 ◆ 터키 바이어들의 장기적이고 집요한 협상스타일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까지 행정당국의 불필요한 관행이 존재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터키는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유일한 비 EU국가로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EU와의 협약에 의한 의무사항임.
 - 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존 체결한 FTA의 유리한 점*만을 조합하여 터키측이 불리한 협상이었다는 의견이 현지에서도 지배적
 - * 자율 원산지증명제, 기 체결 FTA 중 최고수준의 무역구제 조치 확보, 관세 환급 및 역외가공 협의 등
 - 또한 상대적으로 터키가 강한 농업분야는 쌀 및 곡물 관련 품목 (16품목)은 모두 협상상의 모든 의무에서 제외됨.
- 한·터키 FTA는 분명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수혜를 줄 것으로 기대되나 터키를 단일시장으로 보는 것은 금물임.
 - 터키 이스탄불 지역(전체 국토의 3%, 인구의 20%)은 1인당 GDP 2만 달러 이상인 지역으로 유럽, 미국산 제품의 경쟁이 치열
 - 상대적으로 일본제품도 독일제품과 경합관계에 있어 수출이 쉽지 않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터키 바이어의 협상 스타일은 장기적이고 집요하여 가격 경쟁력만으로 협상에 임할 경우 실패할 경우가 많음.

- 이번 FTA는 수출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 및 투자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됨.
- 터키는 2012년 전 세계 17위인 경제규모를 2023년까지 10위로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터키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개최지로 선정될 경우 경제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터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 분야에서도 최근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아시아권 자금을 많이 유치하고 있음.
- 향후 금융분야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기업의 금융 분야 대한 투자전망도 한층 밝아질 예상
- 9월,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막과 맞추어 한국 상품전 및 FTA 설명회 개최를 통해 홍보 극대화
- 또한 투자진출 가이드 발간, 터키 측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관심 품목에 대한 수요발굴을 꾸준히 병행할 예정이므로 관심이 필요
- 이러한 수출확대는 자연스럽게 유럽과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인 터키에 대한 투자진출확대로 이어질 것임.
- 특히, 원자재·부품중심의 수입을 하고 있는 터키의 산업구조 상, 각 분야 우리 중소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편
- 아울러,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인해 인프라, 에너지, IT/ICT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 수요가 점차 증가할 전망
- 최근 터키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對터키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고, 터키 정부가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에 주력 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비가 요구됨.

<끝>

2013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오바마 재선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3.1
13-002	2013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1
13-00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공작기계 (머시닝센터) -	2013.1
13-00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골프용품 -	2013.1
13-005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안경테 -	2013.1
13-00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에스터 단섬유 -	2013.1
13-007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폴리프로필렌 테이프 -	2013.1
13-008	선진국의 미래산업 육성정책	2013.2
13-009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광케이블 -	2013.2
13-01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전동공구 -	2013.2
13-01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타컴퓨터주변기기 -	2013.2
13-01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펌프 -	2013.2
13-013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2013.2
13-014	한-콜롬비아 FTA 효과 및 활용방안	2013.2
13-015	떠오르는 이라크 재건시장을 선점하라	2013.2
13-016	주요국 환율변동에 따른 해외시장 동향과 진출여건	2013.2
13-017	엔저하의 수출 경쟁력 현황 및 전망	2013.2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대미 수출 성과 분석	2013.3
13-019	일본의 대인도 진출전략 및 대응방안	2013.3
13-020	독일 직업교육 훈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주요 시장 동향 <기타 무선통신기기>	2013.3
13-02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플라스틱 가공제품 -	2013.3
13-02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편직물 (인조섬유제) -	2013.3
13-024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멕시코	2013.3
13-025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2013.3
13-026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유리 저장 용기 -	2013.3
13-027	미국-EU FTA 추진현황과 향후 시사점	2013.3

13-028	日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현황 및 시사점	2013.3
13-029	2013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3.4
13-030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X선 및 방사선기기부품 >	2013.4
13-031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기초화장품 -	2013.4
13-032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합성수지·합성고무 -	2013.4
13-033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 밸브·기타기계류 -	2013.4
13-034	중소기업 신규 수출확대 유망품목 시장동향 및 진출방안 <스키 헬멧>	2013.4
13-035	Post Chavez, 변화와 전망	2013.4
13-036	2013년 美 USTR 무역장벽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2013.4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3.5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대만시장에서 한류 활용하기	2013.1
13-002	[중국 석학에게 듣는다] 2013 중국 경제 전망	2013.2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해외 주요국 투자인센티브 현황 및 사례조사	2013.1
13-002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2013.1
13-003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3.1
13-004	2012년도 북한의 대외교류동향	2013.2
13-005	GCF시대에 대비한 세계그린프로젝트 수주방안	2013.3
13-006	국가IR 개선 방안 연구	2013.3
13-007	2009~2012 KOTRA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성공사례집	2013.3
13-008	2013 외국인투자 가이드	2013.4
13-009	2013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업체 디렉토리	2013.5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3-001	2013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3.1
13-002	2013 중국3대 유망시장 설명회	2013.1
13-003	2013년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3.1
13-004	Iraq-Korea Business Forum	2013.3
13-005	Reshoring to KOREA - 국내 U턴기업 지원제도 및 투자환경 설명회 -	2013.4
13-006	2013년 제1회 차이나 커뮤니티 세미나	2013.3

작성자

◆ 이스탄불 무역관	김재우 차장
◆ 신흥시장팀	박정현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3-037

한·터키 FTA 10대 수출 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헌
발행월 | 2013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